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청태연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압촌성,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女心 취향저격’… 편의점 효자고객이 바뀐다

편의점 새 성장동력으로 여성 고객 주목

가치소비 성향으로 객단가 높아 실속
뷰티업체 협업 전용제품, 매출 신장세
여성 선호 디저트와 조리면 ‘간판스타’



유통

편의점의 효자 고객이 바뀌고 있다. 편의점은 그동안 주류와 담배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남성고객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편의점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여성 고객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성 고객의 경우 남성에 비해 구매 빈도는 적지만 취향이 강해 객단가가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편의점업계의 여성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뷰티용품의 전진 배치, 화장품업계와 경쟁적으로 제휴를 맺고 전용 제품을 매장에 진열하고 있다. CU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제휴해 에뛰드하우스의 베스트셀러를 작은 용량으로 포장한 ‘에뛰드 미니 케어 시리즈’를, GS25는 LG생활건강 비온드와 맞손을 잡고 기존 인기 제품을 소용량 키트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 중이다. 세븐일레븐도 비썬엘과 손잡고 색조 브랜드 ‘0720’을 내놓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실제로 편의점에서 뷰티용품의 매출 성장세는 눈에 띌 정도로 크다. 올 3분기 말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CU 23%, GS25 26.5%, 세븐일레븐 21.2%나 늘어났다.



여성 고객 모시기에 나선 편의점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세븐일레븐도 여성 취향에 맞춘 ‘세븐카페 프리미엄 디저트’를 출시했다.

사진제공 | 세븐일레븐

●GS25 “여성 선호 조리면 매출 다섯배 증가”

편의점하면 으레 머리에 떠올리는 먹거리에서도 디저트와 조리면 등 2030 젊은 여성고객의 취향저격 품목들이 매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자체 원두커피 브랜드 세븐카페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 메뉴를 옵션한 ‘세븐카페 프리미엄 디저트’를 내놓았다. CU는 미니 사이즈 디저트 라인 ‘커피엔 디저트’ 시리즈를 론칭했다. 지난해 디저트 매출이 전년 대비 136% 신장하는 등 큰 인기를 끌자 디저트 카테고리 확

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CU측 설명이다.

도시락 부문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파게티, 우동 등 조리면 제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GS25는 스파게티를 시작으로 하절기 시즌 상품으로 자루소바, 김치말이국수, 비빔면 등을 선보였으며 요즘은 동절기를 겨냥한 잔치국수를 내놓는 등 올해 15종의 조리면 제품을 내놓았다. CU는 겨울을 맞아 쫄깃한 면발을 강조한 리얼 우동 시리즈 ‘야채튀김 우동’과 ‘돈코츠 우동’으로 승부를 걸었다.

조리면 역시 매출이 가파르게 커져 GS25의 경우 그동안 조리면 매출이 2015년 48.4%, 2016년 56.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79.5%나 증가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전에는 7대3으로 남성과 고객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6대4로 여성 고객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화장품에서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이통거인들 또 올림픽 통신망 갈등…KT, SKT에 내용증명 보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이통통신사간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KT는 26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의 광케이블

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는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 등의 임원급 협의를 진행해 SK텔레콤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키로 합의했다. KT는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했다”며 “SK텔레콤은 국가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KT의 주장에 SK텔레콤은 “올림픽조직위가 주관한 협의에 따라 29일까지 이행하기로 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된 일정대로면 올림픽 일정이나 경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은 SK텔레콤이 강원도개발공사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할당받은 구간”이라며 KT의 지적에 대해 “적반하장식 행태”라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설화수 모델로 발탁된 송혜교.

사진제공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새 모델로 브랜드 전략 수정

설화수, 1997년 론칭 이후 첫 모델 선정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들이 새 모델을 발탁해 브랜드 전략을 다시 짤다. 아모레퍼시픽은 26일 기존 라네즈 모델이던 송혜교를 설화수 모델로, 라네즈 모델로는 새로 김유정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설화수는 1997년 브랜드 론칭 이후 그동안 모델을 기용하지 않다가 이번엔 처음으로 송혜교를 기용했다. 설화수 측은 “송혜교는 다양한 매력은 물론 설화수만의 헤리티지를 전 세계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특별한 영감을 줄 수 있는 흡입력 있는 배우”라며 “설화수는 앞으로 송혜교를 통해 전통과 현대, 조화와 균형의 철학에서 찾아낸 진정한 미학을 견고히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화수가 이번에 송혜교를 브랜드 첫 모델로 발탁한 데는 시장 경쟁 브랜드인 LG생활건강 후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후는 브랜드 론칭하면서 한류스타 이영애를 모델로 기용, 중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후가 올해 1조 브랜드로 올라선 데는 이영애 모델 효과가 컸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송혜교의 뒤를 이어 라네즈 뮤즈로는 2018년 스무살을 맞은 김유정이 발탁됐다. 라네즈 측은 “김유정은 밝고 생기 있는 이미지와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가 아름다운 배우”라며 “스무살 김유정을 통해 좀더 밝고 트렌디한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뽀로로·로보카폴리·라바… 이곳에 다 모인다

30일부터 ‘캐릭터 원터월드 페스티벌’ 개최

국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전시와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캐릭터 원터월드 페스티벌’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30일부터 1월 1일 새벽2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뽀로로, 업마 까투리, 로보카폴리, 라인프렌즈, 터닝메카드, 핑크퐁, 라바, 슈퍼윙스 등 국내 13개와 쿠팡팬더, 슈렉 등 해외 4개 등 총 17개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행사장을 ‘평창 온(ON)’, ‘모두 온(ON)’, ‘드림 온(ON)’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인기 캐릭터들이 빙상, 설상, 슬라이딩 등 올림픽 동계스포츠를 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한 모두 온(ON) 구역에는 캐릭터들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캐릭터 응원 체력관’과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2018장으로 평창 대회를 응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포토 모자이크 월’을 마련했다.

‘드림 온(ON)’ 구역에서는 평창 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디비, 국내외 캐릭터 인형이 펼쳐는 응원댄스 플래시몹이 매일 세차례 열린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위커힐 호텔, LG전자와 호텔 로봇 서비스 공동개발

SK네트웍스(위커힐(이하 위커힐))는 LG전자(이하 LG전자)와 호텔 로봇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랜드 위커힐 서울에서 실시된 체결식에는 위커힐 도중섭 총괄과 LG전자 류혜정 H&A스마트솔루션사업담당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호텔 로봇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위커힐 도중섭 총괄은 “이번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커힐은 2018년 1월 18일 개강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프리미엄, 일반 라운지와 환승, 캡슐호텔을 운영한다. 이곳에 LG전자의 안내로봇을 비치하고 한 달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안내로봇은 캡슐호텔의 주요 시설 및 위치 정보 안내뿐 아니라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주는 에스코트 서비스도 결합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롯데마트가 후원하는 음악재능 꿈나무 ‘드림캐처스’가 28일 KBS아트홀에서 ‘송년음악회 드림콘서트’(사진)를 연다.

드림캐처스는 롯데마트가 음악에 재능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선발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롯데마트가 후원하는 음악재능 꿈나무 ‘드림캐처스’가 28일 KBS아트홀에서 ‘송년음악회 드림콘서트’(사진)를 연다. 드림캐처스는 롯데마트가 음악에 재능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선발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난해 12월 오디션과 올해 2월 발대식을 거쳐 현재 바이올린 3명, 첼로 2명, 피아노 2명, 성악 2명 등 총 12명의 단원으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3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드림캐처스의 지난 1년간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그들이 준비한 송년 음악 선물을 선보이는 자리로, 단원들의 솔로곡을 포함해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6일

코스피지수	2427.34	↓	-13.20
코스닥지수	762.21	↑	+1.01
日 닛케이 지수	2만2892.69	↓	-46.49
中 상하이 종합	3306.13	↑	+25.6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3		0
환율 (원·달러)	1076.20	↓	-3.8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4243.07	↑	+208.55

오늘의 얼굴

이호진 전 회장, 1000억 지분 무상증여



태광그룹은 26일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을 티시스에서 인적분할하는 투자사업 부문과 다른 계열사 쇼팽엔티 등과 내년 4월1일부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발표는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사진)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를 7개에서 1개로 줄이는 지배구조의 일환이다. 상품권 업체인 한국도서보급은 이 전 회장이 지분의 51%, 아들 현준 씨가 49%를 각각 보유한 회사로, 향후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이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티시스(사업 부문)의 1000억원 상당 지분 전체를 무상으로 증여할 계획이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의 무상증여가 결정되면 지배구조가 단순·투명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 윤리경영시스템의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 TALK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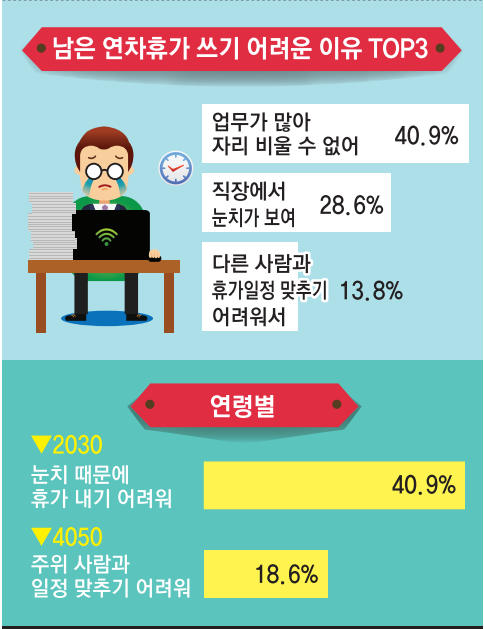
●“금리인상 너무 빠르면 중소기업 부실 우려”
(26일 나온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기준금리 인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 정상적인 중소기업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부실화되는 부작용 우려된다며)

●“가상화폐 거품 붕괴 땀 났지만 흥남 위협”
(미국 웰스파고 크리스토퍼 하비 주식전략 책임자, 25일 방송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에 상당한 양의 거품이 졌다”며 “거품이 붕괴되면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 미쳐”라고 주장)

데이터 경제

직장인 10명 중 7명 연차 남겨 “업무 때문에…” 가장 많아

다국적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2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69%에 달했다. 개인 평균 4.8일로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유급휴가 중 68%만을 소진한 셈이다. 연차를 모두 쓴 응답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았고, 반대로 연차가 15일 이상 남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다. 잔여휴가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업무가 많아 자리를 비울 수 없다”(40.9%)가 가장 많았다.



편집 | 이수진 기자